

[유통]

김명주
 02-3774-1458
 myoungjoo.kim@miraeasset.com

경민정
 02-3774-1437
 minjeong_kyeong@miraeasset.com

유통

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유통 코멘트

브랜드, 동대문 패션 상품의 '하루배송' 서비스 도입 <https://bit.ly/2XFsjhE>

- 동대문 기반 패션 플랫폼 '브랜드(쇼핑몰)', 동대문 패션 상품을 당일 / 새벽에 받을 수 있는 '하루 배송 서비스 도입'
- 브랜드는 기존 익일배송인 '오늘 출발' 서비스 제공. 추가적으로 1) 저녁 도착: 오전 8시까지 주문할 경우 오후 8시까지 2) 새벽 도착: 오후9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새벽 7시까지 받을 수 있음 서비스를 추가
- 브랜드는 동대문 풀필먼트 센터 내 전체 물량의 20% 선매입(재고부담). 재고회전기간은 약 4일
- 브랜드는 수요예측 알고리즘 기반으로 패션 제품을 선매입 진행
- 저녁 도착은 이륜차 배송 서비스, 새벽 배송은 팀프레시 배송 서비스 이용
- 최근 패션 플랫폼들은 자체 물류 투자 및 물류/풀필먼트 기업과 협업을 통해 배송 기능 강화
- 이는 오프라인 의류 구매 이유 중 하나인 '구매 후 착용 가능' 을 일부 상쇄해 줄 것
- 1) 패션 플랫폼의 배송 기능 강화와 2) 쿠팡의 패션 카테고리 확대로 저침투 카테고리인 의류 침투율 상승이 가속화될 것
- 중저가 의류/잡화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전될 가능성 높음. 이는 오프라인 백화점에 부정적

전일 주요 뉴스

- 정부, 이르면 이번 주 '제2차 국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방침' 발표 예정. 1) 대기업 임대료 할인 20% -> 50% 까지 높이는 방안과 2) 내년 임대료 할인 조건 포기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<https://bit.ly/3c7KjQe>
- 한섬, SK바이오랜드 지분 27.9% 인수 추진 <https://bit.ly/3eotVws>
- 월마트, 리세일 플랫폼 ThredUp과 제휴 맺고 중고 패션아이템 온라인 판매 예정 <https://cnn.it/2zrl0dQ>
- ① **이마트 (전일주가 +1.36%)**
- 이마트, 미래형 점포인 '이마트타운 월계점' 28일 오픈. 식료품 강화/비식품 전문화/임대매장 확대 중심으로 개편하여 오프라인 경쟁력 극대화 <https://bit.ly/2A9UFSv>
- ② **롯데쇼핑 (전일주가 +0.57%)**
-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, 고객 체류 시간 증대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강화하며 롯데몰로 전환 <https://bit.ly/2AdQvsG>

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명	티커	투자이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 (십억원)	성과(%)				
						1W	1M	3M	YTD	1Y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105,000	88,200	2,495	-0.3	4.1	-11.4	-34.9	-44.9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11,500	3,108	-0.9	2.8	7.7	-12.5	-23.9
호텔신라	008770	Trading buy	100,000	80,200	3,148	-3.0	4.3	-7.1	-11.7	-13.2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48,500	2,447	-0.4	2.1	-2.4	-14.0	-14.6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33,000	28,100	663	-0.7	28.9	26.3	-9.1	-35.3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90,000	65,400	1,531	-5.1	-3.1	-6.8	-21.3	-23.1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42,800	3,296	4.6	36.7	20.2	9.0	21.2
BGF리테일	282330	매수	195,000	157,000	2,714	-0.3	5.7	-0.9	-7.4	-21.7
지누스	013890	매수	150,000	85,700	1,218	1.4	8.9	-11.9	-7.7	22.4

주: 2020.5.27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	1W	1M	3M	YTD	1Y	20F	21F	20F	21F	20F	21F
롯데쇼핑	023530 KS	2,495	2,019	-0.3	4.1	-11.4	-34.9	-44.9	43.1	10.9	0.2	0.2	0.5	2.0
이마트	139480 KS	3,108	2,515	-0.9	2.8	7.7	-12.5	-23.9	12.1	12.1	0.3	0.3	3.0	2.8
호텔신라	008770 KS	3,148	2,547	-3.0	4.3	-7.1	-11.7	-13.2	-	15.1	3.7	3.0	-6.0	22.5
신세계	004170 KS	2,447	1,980	-0.4	2.1	-2.4	-14.0	-14.6	16.2	8.0	0.6	0.5	3.6	7.4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663	537	-0.7	28.9	26.3	-9.1	-35.3	9.5	8.6	0.3	0.3	3.6	3.9
현대백화점	069960 KS	1,531	1,239	-5.1	-3.1	-6.8	-21.3	-23.1	9.5	6.5	0.3	0.3	3.7	5.2
GS리테일	007070 KS	3,296	2,667	4.6	36.7	20.2	9.0	21.2	16.2	14.4	1.4	1.3	9.2	9.8
BGF리테일	282330 KS	2,714	2,196	-0.3	5.7	-0.9	-7.4	-21.7	17.5	15.3	3.7	3.2	22.7	22.0
자누스	013890 KS	1,218	985	1.4	8.9	-11.9	-7.7	22.4	12.5	9.7	2.8	2.2	26.1	26.5
Walmart	WMT US	351	350,982	-1.3	-4.3	8.3	4.2	20.9	24.7	22.8	3.5	4.3	16.9	19.9
Kroger	KR US	24,663	24,663	-2.9	-4.8	5.7	8.2	32.8	12.4	12.6	2.5	2.3	21.3	17.7
Costco	COST US	134,594	134,594	0.0	-1.9	0.0	3.7	23.7	36.2	33.0	7.4	6.5	23.7	21.7
Target	TGT US	57,551	57,551	-3.8	6.8	3.0	-10.2	42.5	23.0	17.2	4.7	4.6	20.1	27.3
Macy's	M US	1,911	1,911	21.7	22.9	-57.7	-63.7	-70.7	-	7.4	0.4	0.4	-14.5	6.0
Bestbuy	BBY US	20,464	20,464	-2.5	10.6	-3.0	-9.5	21.5	16.1	13.3	5.2	5.0	34.4	38.3
Nordstrom	JWN US	2,628	2,628	11.3	-5.8	-54.3	-58.9	-49.0	-	8.5	3.4	3.6	-19.2	42.4
Ocado	OCDO LN	14,358	17,672	2.5	27.4	86.8	60.0	69.8	-	-	15.7	18.1	-23.0	-25.6
Isetan Mitsukoshi	3099 JP	291,555	2,712	6.2	14.1	-2.6	-25.2	-20.5	-	31.5	0.5	0.5	-5.4	1.5
Takashimaya	8233 JP	188	1,752	6.9	10.8	-0.9	-13.7	-11.4	-	13.2	0.4	0.4	-1.1	3.3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217	29,919	1.2	1.8	-6.7	-9.3	-4.9	17.1	14.4	1.2	1.2	6.7	8.0
Familymart	8028 JP	983	9,145	5.0	9.5	-19.7	-26.1	-33.5	18.6	17.0	1.6	1.5	8.9	9.5
Lawson	2651 JP	590	5,485	4.4	-0.3	-3.1	-5.0	11.6	26.1	21.2	2.1	2.0	7.9	9.4

주: Local은 십억원, 십억엔, 백만달러임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, GS리테일, 호텔신라, 롯데쇼핑, 이마트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